

2021년 5월 9일자 이상룡 선교사님 기도편지입니다.

## 손자들의 세족식

어제는 어버이날이라고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저희가 사는 선교관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손자들이 '숙제'를 해야 한다면서 미리 준비해온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받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손자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에서 효도쿠폰(안마하기, 심부름하기, 뽀뽀하기, 설거지하기 등등)이라는 것을 만들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일년간 꼬박 한국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시에 '코로나 덕분에' 손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에게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되어서 감사했고, 이런 깜짝 이벤트도 받아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십니다. 사실 몸만 한국에 있지 하는 일들은 모두 줌(Zoom)으로 이루어 집니다. 성경번역 워크숍, 현지에서의 기도모임, 예배, 성경번역 점검 등등..

## L 부족어 로마서 점검

지난 주간은 네팔의 L 부족어로 번역된 로마서를 온라인으로 점검해 주었습니다. 이 부족어는 저희가 사역하는 세르파어와 같은 티벳 계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언어는 모르지만 추측 가능한 단어들이 번역자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문을 해주기 전에 먼저 그 부족어로 번역된 본문과 영어로 역번역(Back-Translation)된 자료를 받아서 번역점검을 준비하게 됩니다.

문장구조와 단어들을 자세히 살피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번역은 현지인 번역자와의 토론을 통해 수정하게 하고, 주요 단어들(Key Terms)이 바로 번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점검 중 L 언어에서도 세르파어와 마찬가지로 무덤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영어로 tomb 으로만 역번역할 경우 티벳언어와 문화에 익숙치 않은 점검자들은 문제를 정확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과연 제가 추측했던 바대로 무덤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없고, 대신 깊은 산중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장소를 무덤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르파 번역도 처음에는 무덤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가 유대지방의 굴 형식의 무덤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결국 세르파어 무덤의 단어(key Term)는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갖다놓는 곳"이라고 다소 길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 네팔의 코로나 상황

인도의 코로나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인도와 국경이 열려 있는 네팔은 인도로부터 되돌아오는 수많은

네팔 사람들로 인해 연일 확진자가 9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느슨했던 록다운이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고, 최근 한인선교사들도 여러 명 확진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세르파 교회에는 아직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팔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네팔로 돌아갈 경우 백신을 맞고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딸 영림네 방문

영림이 가족은 작년 코로나를 피해 뉴욕을 떠나 시댁이 있는 콜로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뉴욕은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는지 뉴욕을 떠나면서 더 이상 작가로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울면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을 예비하고 계셨더군요.

콜로라도의 큰 도시인 덴버의 현대미술박물관으로부터 영림이가 개인전시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3 월부터 열린 전시회가 올 9 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사실 2019 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휘트니 비엔날레에 작품을 전시했을 때에도 가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며 아쉬워했는데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던 중 영림이가 미국 와서 전시회도 보고, 온 김에 백신도 맞고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서 한동안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월 24 일 출국해서 7 월 14 일에 돌아올 계획인데 무사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길 빕니다.

2021 년 5 월 9 일

이상룡 이혜련 드림